

“난생 처음 캐릭터에 빙의된 것처럼 살았죠”

오인범 역 하면서 다 내려 놓자 결심 비슷한 캐릭터만 하다보니 변신 갈망 높아진 행복지수…유지하는 게 목표 노래·연기·예능 모두 꾸준히 해야죠



‘연예인’이란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로 정용화(32)를 빼놓을 수 없다. 11년차 밴드 씨엔블루의 메인 보컬, 6편의 주연 드라마를 보유한 연기자,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사랑받는 진행자…。 2009년 데뷔 이후 성과만 늘어놓아도 단번에 납득이 간다. 영역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씬 없이 달려온 덕분에 대중의 뇌리에 이름 석 자를 아로 새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이는 “나를 가둬 놓는 틀”과 같다. “때때로 연기하면서 ‘연예인으로서는 매력’이 깨질까 고민’했다. “잘 생겨만 보이고 싶은 20대 특유의 욕심”과 “주로 소화했던 멋지고 다정한 캐릭터”도 족쇄였다. 그런 정용화에게 9일 마친 KBS 2TV ‘대박부동산’은 “비로소 새장 밖으로 한 걸음 나오느” 계기가 됐다. 15일 화상으로 만난 그는 퇴마를 소재삼은 드라마에서 능글맞은 사기꾼 오인범을 연기하며 “전부 다 내려놓자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캐릭터 말고 그 어느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은 적은 처음이에요. 전에 했던 건 다시 하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연기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비슷한 캐릭터를 계속 맡아와서인지 도전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컸죠. ‘대박부동산’이 변신할 절

호의 기회였어요. 다행히도 좋은 반응을 얻어 기뻐요. 더욱 새로운 연기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거칠 것 없이 푹 빠져들며 “진짜 캐릭터에 빙의가 됐나” 싶을 정도로 신나게 연기했다. 장나라·강홍석·강말금 등 “평생을 함께 할 동료들”도 얻었다.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안방극장 4년의 공백도 말끔하게 씻어냈다. “군 복무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이기도 해요. 사실 20대 때에는 일 욕심이 커서 늘 초조했고, 압박감에도 시달렸어요. 2018년, 비교적 늦은 나이인 29살에 입대해 확 달라졌죠. ‘형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 꽤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았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죠.” 마음가짐이 달라지자 여유도 함께 찾아왔다. “이제는 눈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즐기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인조로 그룹을 재편하고, 차기작을 고심하면서 겪은 부담감도 “너무 깊은 고민은 독”이란 생각으로 헤쳐 나갔다. 이제는 “확실히 높아진 행복지수”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가수와 연기자,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웃었다. “앞으로 보여줄 게 정말 많아요. 가수로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 대본도 들어오고 있어 곧 다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능프로그램도 재미있는 것이라면 다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이든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9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대박부동산’의 주연 정용화. 이번 드라마에서 사기꾼 역을 탁월하게 소화한 그는 “틀을 벗어나 새장 밖으로 한 걸음 나오게 됐다”고 말한다. 사진제공 | FNC엔터테인먼트

김희애의 ‘특급예능 나들이’

디스커버리채널 ‘잠적’ 출연 확정 차로 여행 즐기는 로드무비 형식

배우 김희애가 ‘특급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영화와 드라마로만 자신을 드러내온 그가 최근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그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일찌감치 호기심을 잡아끌고 있다. 김희애는 디스커버리채널의 새 프로그램

램 ‘잠적’에 출연기로 최근 확정했다. 스타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홀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로드무비 형태로 담은 프로그램이다. 앞서 배우 김다미가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희애는 여행지를 돌면서 인사사부터 연기 철학까지 솔직한 생각을 풀어놓는다. 2013년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예능프로그램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달 말 촬영하며 방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배우 김희애가 다양한 예능무대로 시청자를 만난다. 사진제공 | 리틀빅픽처스

또 백종원 디본코리아 대표가 진행하는 넷플릭스 예능콘텐츠 ‘백스피릿’에도 출연한다. 최근 게스트 녹화를 마쳤다. 연기 분야의 대표 인물로 초대돼 백 대표와 술잔을 기울이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 대세’로 꼽히는 백 대표와 김희애의 조합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김희애의 있던 예능무대는 차기작 활동에 나서기 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를 만나겠다는 의지이다. 김희애는 영화 ‘더 문’(가제·감독 김용화)에 캐스팅돼 조만간 촬영을 시작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한국영화 기대작, 여름 성수기 ‘희망의 손익계산서’

‘모가디슈’ ‘인질’ ‘싱크홀’ 등 한국영화 기대작이 여름 개봉을 예고한 가운데 영화계가 손익계산을 시작했다. 7월7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블랙 위도우’도 출시표를 던져 여름시즌 관객몰이에 나서는 각 영화제작진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핵심은 구체적인 개봉 일정을 둘러싼 셈법이다. 극장가 연중 최대 성수기인 7·8월의 어느 시점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관객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 위도우’가 극장가를 장악한다면 한국영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제작진은 ‘블랙 위도우’의 흥행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개봉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모두 스타급 연출자와 배우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마다 기대를 걸고 있어 관련 고민은 더 치열하다. ‘모가



모가디슈 인질 디슈’는 ‘베테랑’의 류승완 감독과 김윤석·조인성 등이 손잡은 대작이며, ‘인질’은 황정민을 내세워 여름시장을 노린다. ‘싱크홀’은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과 차승원·김성균·이광수 등이 호흡을 맞췄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15일 “‘블랙 위도우’가 여름 흥행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영화 기대작들은 그보다 2~3주

가 지난 7월8초(7월 말~8월 초)에 공개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엇비슷한 시기에 함께 극장에 내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근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컨저링3:악마가 시켰다’ 등 흥행으로 극장가에 조금씩 활기가 도는 상황에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맞부딪칠 경우 관객이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같은 시기를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감염병 확산 사태라는 특수한 시장상황이다”면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개봉 일정을 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일부 외화의 흥행이 신규 개봉작에 대한 관객의 갈증이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한국영화 기대작 개봉도 그 연장선상에서 극장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소속된 한국상영관협회도 ‘모가디슈’와 또 다른 기대작 ‘싱크홀’에 총 제작비의 50% 회수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영화 티켓 매출이 총 제작비의 50%까지 발생하면 극장이 매출 전액을 배급사에 지급한다.또 한국 IP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업계도 극장 동시 공개 또는 극장 개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하는 작품에 매출의 80%를 배급사에 주기로 했다. 신규 작품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더 많은 개봉작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류승범, 슬로바키아 이주 고려
파리 생활 접고 처가 근처로…연기 활동도 대비



류승범

열 살 연하의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지난해 결혼해 프랑스에 거주 중인 배우 류승범이 보금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아내를 위해 슬로바키아로 이주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류승범이 슬로바키아의 처가 인근에 새로운 집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류승범은 지난해 6월 결혼하면서 딸을 얻었고, 이들 가족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다. 관계자는 “향후 연기 활동에 대비하고, 아내와 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가 거처를 옮기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류승범은 결혼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 황정민과 박정민 등이 소속된 기획사 샘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모델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귀국해 관련 화보를 촬영하기도 했다. 2019년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 이후 작품 활동을 잠시 멈춘 그가 다시 무대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행보로 읽힌다. 슬로바키아로 거처를 옮기려는 것도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한국을 오가며 영화와 드라마 등 본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정착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셈이다. 관계자는 “특히 처가 인근에 거주하게 되면 작품 활동을 위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와 어린 딸의 일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나홍진 감독의 ‘랑종’ 부천국제영화제서 첫 공개



나홍진 감독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기획·제작한 태극영화 ‘랑종’ 등 국내외 97편의 영화가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8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쳐지는 가운데 ‘랑종’ 등 47개국 258편을 선보인다. 올해로 25회째인 영화제는 CGV 소풍과 어울마당 등 극장에서 15일까지, OTT 웨이브에서 18일까지 영화를 상영한다. 최근 별세한 ‘여고괴담’ 시리즈의 제작자인 이준원 씨(2000 대표)를 추모하는 기획전도 마련, ‘여고괴담’과 ‘더 테러 라이브’를 상영한다. 개막작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로 낮익은 대만 구파도 감독의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이다.

데뷔 10주년 맞은 최우식 ‘온라인 팬미팅’



최우식

연기자 최우식이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온라인상에서 팬들을 만난다. 15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최우식의 언택트 팬미팅 ‘한여름 밤의 꿈’을 7월5일 오후 7시 카카오톡TV를 통해 연다”고 밝혔다. 팬미팅은 카카오톡엔터테인먼트가 기획·제작한다. 최우식은 2011년 드라마 ‘짝패’로 데뷔해 영화 ‘거인’, ‘부산행’, ‘사냥의 시간’ 등에 출연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해외에 얼굴을 알렸다. 스튜디오엔 오리지널 드라마 ‘그 해 우리는’ 촬영을 앞두고 있다.

연기자 하연주 20일 비공개 결혼식



하연주

연기자 하연주가 결혼한다. 15일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하연주가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며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신랑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하연주는 앞서 SNS를 통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새로운 출발에 격려와 축복을 보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간직하겠다”고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한 바 있다. 하연주는 2008년 드라마 ‘그 분이 오신다’로 데뷔해 tvN ‘더 지니어스’ 시리즈 등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